

6월7일(월)/사도행전25:23~27

**제목: 좌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가이사에게 보내지면 그와 함께 그 사건과 고소 내용을 서면을 보내야하는데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 아무것도 보낼 것이 없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찾기 위해서 법정을 열었고 여기에 아그립바와 천부장과 여러 시의원들이 참석하였다(23절). 베스도는 바울을 가리켜 ‘살려두지 못할 자’ (24절)라고 소개하였지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자” (25절)고 소개하였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은 첫 번째 재판인 산헤드린 종교 재판 때에도 천부장 루시아가 확인한 바 있었다(23:29). 또 벨릭스 총독의 재판 때도 확인바 있었다(24:23). 그리고 지금 베스도 총독의 입에서 다시 확인 되고 있다. 바울은 계속되는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그는 계속 좌절을 경험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석방되었어야 할 사람이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바울의 계속되는 좌절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좌절을 계속 만난다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6월8일(화)/사도행전26:1~23 (1)

**제목: 인간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바울은 이제 아그립바에게 변론할 기회를 얻었다(1~2절). 그곳은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궁정행사였다. 이 행사에 베스도, 아그립바, 베니게, 행정장관들이 있었다. 바울의 연설은 주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의 한 일원이었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였다(4~18절).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보신 이것들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증거한다고 하였다(19~22). 이 바울의 연설 안에 복음의 핵심인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확하게 들어있었다. 인간의 책임이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18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이렇게 돌이킨 자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다(18절). 바울은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던 아그립바에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복음의 도를 분명히 전했다. 여기에 전도의 한 방법이 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돌이키는 것은 당신 몫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6월9일(수)/사도행전26:1~23 (2)

**제목: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바울이 선 이 자리는 많은 행정장관들, 군대의 지휘자들 및 그의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총독이 아그립바와 베니게를 기쁘게 해 주기위한 행사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 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후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 첫 번째는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행22:1~21),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행23:1~6)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24:10~21), 네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25:6~12) 그리고 이제는 아그립바 앞에서 그 기회를 얻었다. 매번의 재판에서 바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항상 제기되었으나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9:15).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었다. 그는 결박되어 있어야 했다. 그래야 이방인과 임금과 총독 앞에 계속 설수 있었다. 그는 감옥을 빠져 나갈 수 없는 몸이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의 전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한 순간도 빠져 나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항상 그의 손안에 있다.

6월10일(목)/사도행전26:24~29

**제목: 사생결단하는 바울**

바울의 연설 도중에 베스도가 끼어들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24절)고 하였다. 베스도의 방해로 연설이 중단되자 바울은 그 온 힘을 마지막 호소에 결집시켰다. 그는 이제 아그립바에게 사생결단하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덤벼들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 이까” (27절) 묻고 다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7절)라고 긍정적인 자답을 하였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9절) 그는 아그립바의 영혼에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아그립바는 왕위에 있는 자였고 바울은 죄수이다. 어쩌면 바울은 곧 죽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이 얼마나 당돌한 말인가? 그는 항상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 앞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지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기질과 정신은 변화가 없었다. 우리도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과 화끈함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정신과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한다.

6월11일(금)/사도행전26:30~32

**제목: 때로는 하나님이 방해합니다.**

바울의 연설이 끝나자 아그립바와 함께 배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사형시킬 죄 몫이 없음을 이야기했다(30~31절) 그리고 유대의 왕 아그립바도 바울이 석방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선언하였다(32절). 이제는 로마와 유대 두 국가가 바울의 석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석방을 받아드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유대 폭도들 손에 놓아두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로마에 상소한 이상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그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를 죽일 다른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로마의 법에 따라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의 석방에 대한 당국의 진지한 논의는 바울에게 위협천만한 것이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있다. 이즈음에 우리에게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의혹이 풀릴 때도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즈음에 사건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늦추시는 때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